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국에서 글을 씁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친형의 안장 예배를 위해서 입국하였습니다.

친형이신 고(故) 김재욱 집사님은 지난 해 미국에서 별세하셨으나, 그토록 오고 싶어하던 그의 육신은 육이 아닌 영이 되어 이제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故) 김재욱 집사님은 선교사인 저의 귀한 동역자였고 후원자였으며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망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환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선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의 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얼마 전 새벽, 자그레브에 그가 꿈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내가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애도의 눈물이며, 위로의 눈물이며,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형의 유골이 한국 집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형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지난 목요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한 줌 재가 된 형을 마지막으로 보며 작별을 했습니다.

형과 7년 만에 재회였지만, 이젠 육이 아닌 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저는 8월 24일까지 한국에 체류할 계획입니다. 한국 연락처는 010 4348 1559입니다.

현재 대구고산동부교회 선교관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7. 25. 대구에서 김경근 선교사 올림.

